



한미 FTA 8차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

8차 협상에서 양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미국이 정한 타결 시한 날짜 4월 2일은 보름도 남지 않았다.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협상을 제안한 한국 정부 측 입장에서는 시한이 촉박하다. 아직도 협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득실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선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이번 협상은 이전 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측의 공세속에 정부는 방어적 측면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일방적으로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으나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즈음에서 확인해보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8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한미 FTA 공식협상은 끝났고, 양국 정부는 이후 쟁점분야에 대해선 실무급과 고위급, 최고위급 회담을 통한 이른바 '빅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한미 FTA 8차 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자

8차 협상 결과

농업부문 협상이 1,531개 품목 중 18.5%인 284가지(HS코드 기준)로 미국에 제시된 농업부문 개방예외 품목은 235개로 축소되었고 8차 협상이 종료된 시점에서 100여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3월에 있을 고위급 회담에서는 10가지 이하로 제시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세관품목 분류 기준이 아니라 국내에서 통용되는 농산물 구분방식으로 보면 10가지에 불과하다. 즉,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농산물 개방 마지노선은 이미 허물어 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고위급 회담에서는 10가지를 3~5가지로 더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사실상 미국에 농업을 다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10년 관세 철폐를 합의했던 일부 품목에서도 미국측은 돌연 입장을 바꿔 5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초민감 품목을 10가지로 추려 미국에 예외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미국은 예외없는 개방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배중하 농업분과장은 19일~21일 개최예정인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10가지 중 3~5가지 정도를 예외로 하는 방식으로 절충이 가능할 것이며 다시금 논의를 통해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① 세이프가드 쟁점사항

양측은 농업세이프가드(safeguard 임시수입제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러나 어떤 품목을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상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미국이 품목의 수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또한 발동기준에서도 우리정부가 가격기준과 물량기준 세이프가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은 물량기준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으나 가격기준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속기간 또한 세이프가드의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세이프가드도 자동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이 일어나 국내 해당 생산자가 피해를 볼 경우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도록 관세철폐 시기 이후에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쇠고기 수입, SPS 쟁점사항

FTA 협상 의제가 아님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FTA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협상기간 동안 정부 협상단을 강하게 압박하여 수입압력을 재계하고 있다. 뺏고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겠다는 농림부의 완화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전면수입이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피망측한 논리로 FTA에 목말라 하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분야(SPS) 분과에서도 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미국의 요구에 밀려 결국 수용을 하기로 합의했다. 과학적 분석과 위험평가에 미치지 않고 전문가간 기술협약이 우선한다는 전제 아래 협의 채널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설치될 위생 검역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통상 마찰을 다루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위원회 설치가 아닌 협의채널을 주장했던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높은 위생검역 기준을 적용해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위원회가 구성되면 미국의 SPS 분야 압력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③ 관세적용, 수입쿼터 물량 쟁점사항

계절관세 적용이나 수입쿼터 물량 등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계절관세 적용기간이 너무 길다는 입장이고 쿼터 방식은 보다 투명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국은 200%이상 적용되는 고율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를 큰 폭으로 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국내 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TRQ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 분야

〈 한미 FTA 8차 협상 미합의 주요 쟁점 〉

쟁점 분야	한국 의견	미국 의견
농산물	· 농산물 개방 예외 마지노선 10개 제시	· 예외없는 개방원칙 고수 · 몇 개 품목은 이전보다 더 강한 개방수준 요구
자동차	·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안 제시 · 미국 자동차 관세 3년내 철폐	· 미국 관세 철폐 15년 이상 장기화 고수 · 세제개편 등은 이전보다 초강수로 압박
섬유	· 200개 품목 즉시 관세철폐 요구	· 관세 철폐 품목 최소화 및 철폐시한 장기화 고수
서비스	· 시청각 서비스와 방송 · 통신융합 서비스 개방 곤란	· 국제뉴스 채널의 더빙 허용 · 방송쿼터와 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금융서비스	· 원화 표시 자산 운영의 국외위탁과 금융정보 처리 · 국외위탁 등 긍정검토 ·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과 우체국보험의 협정제외	· 단기 세이프 도입하려면 투자자-국가 제소 대상으로 적용 · 우체국 보험도 협정 적용
지적재산권	· 위반 때 배상액은 협정 당사국 법원이 판단	· 위반 때 배상액 무겁게 하고 법으로 규정

기술장벽(TBT), 전자상거래, 환경 분과의 경우 기술적인 내용의 확인사항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협상이 완료되었다.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여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이 남았고 의약품,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원산지, 노동 분과 역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한국의 주력분야라고 예상됐던 섬유부문에서도 협상단은 요구수준을 대폭 후퇴시켰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은 높은 수준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향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향후 전망

협상 진척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주고받기 식’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은 대부분 미국 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거나, 한국측의 ‘작은 요구’를 반영하려면 미국 측의 ‘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양상으로 협상이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의 내용보다는 협상의 타결 시한에 쫓기고 있어, ‘주고받기 식’이 아닌 ‘일방적 내어주기’의 협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핵심 쟁점을 타결할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8차 협상에서의 실무협상은 형식적인 협의에 불과하다. 이 결과 3월 19에서 21일까지 농림부에서 개최되는 고위급 회담 또한 미국측의 손을 들어주는 협상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고위급 회담에서 농업분야 I협상은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일괄 타결 될 가능성이 높다. 고위급 회담의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져 협상 내용이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지난 한중 마늘협상이나 쌀협상의 경우처럼 이면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또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협상 딜레이커(협상 결렬요인)로 부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고위급 협상에서 다른 분야와의 빅딜로 곧 재개되는 것으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3월 19일에서 21일 농업분과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같은 날 워싱턴에서도 한미 양국 수석대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두 차례의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협상 쟁점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서 29일까지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정치권의 태풍의 눈

협상이 미국 TPA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면 6월말 양국이 체결을 하고 국회비준 과정만을 남기게 된다. 국회 비준 동의는 특별히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미 FTA가 국회에 상정될 경우 통과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한미 FTA가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 비준 통과쪽에 무게를 실릴 것이다. 표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정면돌파를 하긴 어려울 것이다. 각 당의 입장은 민주노동당은 확연한 반대 입장이며, 열린우리당 일부의원과 통합신당과 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과의 입장에서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한나라당에서도 농촌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한미 FTA 문제는 이른 바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 할 것이다. 그간 대선주자들은 정치적으로 미묘한 한미 FTA를 크게 건들이진 않고 있다. 그러나 FTA협상이 막판에 이른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의 찬반 입장이 민심을 가르는 주요변수가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